

한국모전석탑(韓國模塼石塔)의 유형(類型)

秦 弘 燮

(一)

한국(韓國) 석탑(石塔)은 성형과정(成型過程)에 있어 단계(段階)의 구분(區分)을 설정(設定)하고 있는 바 기일(其一)의 시원양식(始原樣式)을 거쳐 정형(定型)된 기이(其二)의 전형양식(典型樣式)이 즉(卽) 그것이다. 기이(其二)의 전형양식(典型樣式)은 통초(統初)부터 성립(成立)을 보았고 그 이전(以前)의 양식(樣式)을 일괄(一括)하여 시원양식(始原樣式)이라고 총칭(總稱)하고 있다. 전형양식(典型樣式)은 그 양식(樣式)이 정립(定立)된 후(後)에 시대(時代)를 따라 세부적(細部的)인 변형(變形)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층기단(二層基壇) 위에 탑신(塔身)과 옥개(屋蓋)를 중적(重積)하고 상륜(相輪)을 얹는 방형(方形)의 기본양식(基本樣式)만은 지켜 내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양식(基本樣式)에서 전(全)혀 이탈(離脫)하여 특수(特殊)한 의장하(意匠下)에 설계(設計)되었거나 또는 기본양식(基本樣式)의 일부(一部)를 변개(變改)한 소위(所謂) 이형석탑(異型石塔)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 이형(異型)이라는 어구(語句)에 통합(統合)되는 양식(樣式)이란 어떠한 일정(一定)한 유형(類型)에 맞는 양식(樣式)이 아니라 기본양식(基本樣式)에서 벗어난 양식(樣式)의 석탑(石塔)은 이를 모두 일괄(一括)하여 이형(異型)이라 표현(表現)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양식(樣式)은 시원양식(始原樣式)이건 이형양식(異型樣式)이건 후세(後世)에 복고적(復古的)인 모방품(模倣品)이 생기게 된다. 그 시대(時代)에 일반적(一般的)으로 행(行)해지던 양식(樣式)이 있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그것을 떠나서 왜 전대(前代)의 양식(樣式)을 모방(模倣)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理由)가 있겠지만 동경(憧憬)과 호기(好奇)에서 출발(出發)하였으리라는 점(點)이 추측(推測)된다. 앞으로 논(論)하려는 모전석탑(模塼石塔)도 이러한 류(類)에 속(屬)하는 것이니 석탑(石塔)의 전형양식(典型樣式)에서 볼 때 틀림없이 이형(異型)에 속(屬)하는 것이지만 그 조형양식(造型樣式)이 형태(形態)로 보나 재료(材料)로 보나 전탑(塼塔)이라는 뚜렷한 이색적(異色的)인 존재(存在)에서 출발(出發)하였다는 점(點)에서, 그것을 모방(模倣)한 유형(類型)이 또한 복고적(復古的)인 면(面)과는 달리 어떠한 이질적(異質的)인 문화(文化)에 대(對)한 동경(憧憬)과 호기(好奇)에서 출발(出發)하였으리라고 볼 때 이형석탑(異型石塔)이라는 막연(莫然)한 표현(表現)에서 떠나 하나의 형식(型式)에 묶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二)

모전석탑(模塼石塔)이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석탑(石塔)이고 보면 모전석탑(模塼石塔)에 선행(先行)하는 전탑(塼塔)의 존재(存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삼국기(三國期) 신라(新羅)에서 모전(模塼)한 석탑(石塔)의 유구(遺構)가 전(傳)하고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사(卷四) 양지사석조(良志使錫條)에

석양지(釋良志), 미상조고향읍(未詳祖考鄉邑), 유현적어선덕왕조(唯現迹於善德王朝), (中略) 우상조전조일소탑(又嘗祖彫塼造一小塔), 병조삼천불(竝造三千佛), 안기탑어사중(安其塔於寺中), 치경언(致敬焉)

이라고 한 점(點)을 보아 이미 이 때에 전탑(塼塔)에 대(對)한 지견(知見)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지만 현재(現在)에 그 유구(遺構)를 볼 수 없는 반면(反面) 저 백제(百濟)의 구도(舊都) 공주(公州)에는 한식(漢式)을 따른 전탑(塼塔)의 분묘(墳墓)가 남아 있고 완전(完全)한 전탑(塼塔)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一部)에 탑(塔)을 사용(使用)한 예(例)도 볼 수 있고 또 멀리 고구려(高句麗)의 고지(故地) 통구지방(通溝地方)에서 발견(發見)된 태왕릉(太王陵), 천추총(千秋塚)같은 고분(古墳)에서 「원태왕릉안지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 「천추만세영고(千秋晚歲永固)」, 「보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 등(等)의 명문(銘文)이 있는 전(塼)이 발견(發見)된 점(點)은 이미 전(塼)에 대(對)한 지식(知識)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축건조물(塼築建造物)은 중국(中國)에서 상당(相當)한 발전(發展)을 보여 한대(漢代)에는 널리 보급(普及)되었음을 볼 수 있고 그 문화(文化)가 한반도(韓半島)에 유입(流入)된 바 많았음을 볼 때 전(塼)에 의(依)한 건축기술(建築技術) 또한 전(傳)해졌을 것이고 따라서 삼국기(三國期)에 있어서도 전조탑파(塼造塔婆)가 건립(建立)되어 당시(當時)의 유적(遺蹟)이 현존(現存)하고 특(特)히 안동지방(安東地方)을 중심(中心)으로 밀집(密集)한 감(感)을 준다. 물론(勿論) 라대소축(羅代所築)의 전탑(塼塔)이 현존(現存)하는 것 뿐만이 아니었음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사(卷四) 보양이대조(寶壤梨木條)에

조사지식(祖師智識) 상문운보양(上文云寶壤), 차서해중(次西海中), 용격입궁중염경(龍激入宮中念經), 시금라가사일영(施金羅袈裟一領), 겸시일자유목(兼施一子璃目), 위시봉이추지(爲侍奉而追之), 촉왈(囑曰), 우시삼국요동(于時三國擾動), 미유귀의불법지군주(未有歸依佛法之君主), 군여오자귀본국작갑(君與吾子歸本國鵲岬), 창시이거(創寺而居), 가이피월(可以避賊), 억역불수년내(抑亦不數年內), 필유호법현군(必有護法賢君), 하래심지즉무적(下來尋之則無跡), 재척망지(再陟望之), 내사해룡작갑지언(乃思海龍鵲岬之言), 심굴지과유전무수(尋掘之果有塼無數) 취이온종지(聚而蕪崇之). 탑성이무유전(塔成而無遺塼), 지시전대가담허야(知是前代伽藍墟也). 필창사이주언(畢創寺而住焉). 인명작갑사(因名鵲岬寺)¹⁾

註: 1). 三國遺事에는 이 記錄에 이어 다음과 같이 繼續되고 있다.

未幾太祖統一三國, 聞師至此創院而居, 乃舍五岬田束結納寺, 以清泰四年丁酉, 賜額曰雲門禪寺
이로써 보면 이 塼塔은 淸道 雲門寺에 있었던 것이다. 雲門寺에는 「鵲岬殿」이라는 一間四方의 小佛殿이 있어 洪思俊先生은 雲門寺의 原名인 「鵲岬寺」와 連關을 지어 「鵲岬寺」의 寺名은 五岬寺가 亡한 後 「大鵲岬」에 습cut다는 故事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고 「五層黃塔」 자리에서 「有群鵲啄地」 하였다는 故事는 「五層模塼石塔」의 破壞相을 말하는 것이라 하여 所謂 雲門寺의 塼塔이라는 것이 模塼石塔임을 明示하였다. 그 根據로는 同寺에 傳해오는 現 鵲岬殿을 現在 位置로 移轉하기 以前의 石室 鵲岬殿의 寫眞을 들었고 同 寫眞에 依하면 模造塼石으로 四圍하고 屋蓋는 韓式으로 瓦葺되어 있어 이는 卽 五層黃塔이 破壞된 後 그 搭材—實은 模塼石材—

라고 한 것을 보면 부회(附會)된 전설(前說)이기는 하지만 신라(新羅) 후(或)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전탑(塼塔)의 존재(存在)를 알겠다. 그렇고 보면 현존(現存)한 것 외(外)에도 전탑(塼塔)은 더 축조(築造)되었음이 상정(想定)되고²⁾ 그것은 비단 나대(羅代)에 한(限)한 것이 아니라 여대(麗代)에 있어서도 전탑(塼塔)이 축조(築造)된 사실(事實)이 기록(記錄)에 있음을 보면³⁾ 삼국이래(三國已來) 고려(高麗)에 이르기까지 전탑(塼塔)은 상당수(相當數)가 축조(築造)되었을 것이 짐작 된다.

한국(韓國)에서 전탑(塼塔)이 석탑(石塔)과 같이 크게 유행(流行)은 보지 못하였다. 하드라도 그에 대(對)한 지견(知見)은 충분(充分)히 갖추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색적(異色的)인 것으로 보여졌을 때 임이 연마(練磨)되고 숙달(熟達)된 석조기술(石造技術)을 이용(利用)하여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석탑(石塔)의 출현(出現)은 가능(可能)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한국(韓國)에서는 전탑(塼塔)이 크게 유행(流行)을 보지 못하였을까. 이 문제(問題)에 대(對)하여 고유섭(高裕燮) 선생(先生)은

물론(勿論) 삼국이후(三國以後) 부전(數塼)으로 벽(壁)의 전전(甄塼)으로 기타(其他) 부분적(部分的)으로 사용(使用)되었지만 그것은 실(實)로 귀족적(貴族的) 계급성(階級性)을 갖고 있어 중국(中國)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一般)으로 평민계급(平民階級)까지 보급(普及)되지는 못하였다. 전(塼)은 관아(官衙) 궁전(宮殿) 사원(寺院)에만 사용(使用)되었고 또 부유사족(富裕士族)의 저택(邸宅)에서 일부(一部) 사용(使用)되었다(사족(士族)이더라도 부유(富裕)하지 못하면 사용(使用)치 못하였고 상민(常民)은 부유(富裕)하더라도 사용(使用)치 못하였다. 그만치 조선(朝鮮)에서 전(塼)은 매우 계급적(階級的)이며 또 귀중(貴重)한 것으로 취급(取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정(事情)은 전(塼)

를 모아서 寫眞에 남아 있는 鵲岬石室이 지어지고 그것마저 木造의 現鵲岬殿으로 變遷되었다는 것이다. 果然이 五層黃塔의 塔材가 塼이나 模塼石이나를 判斷하는 問題는 慎重을 期해야 할 것이니 “當寺 事蹟錄에는 鵲岬寺名의 緣由를 虎踞山이 寺院을 顧眄하는 凶脈을 鎮壓하기 爲하여 「黃巒成塔」 하었다고 했다”라는 記錄을 引用하신 것을 보면 「黃巒」을 「黃色 模塼石材」로 解釋하신 모양이다. 그러나 「鵲岬石室」의 用材가 곧 「五層黃塔」의 塔材라는 根據는 稀薄한 것이니 오히려 以上 記錄에 나오는 字句에 忠實하여 塼塔으로 봄이 어머할까 한다 (以上 洪思俊先生 所說은 美術資料 第五號 所收 「雲門寺의 鵲鳴殿」 參照). 또 高裕燮先生은 前記 三國遺事의 記錄을 淸道 佛靈寺에 傳하는 塼塔材에 關한 記錄으로 생각하신 모양이나 이는 錯覺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所收 「朝鮮의 塼塔에 對하여」)

2). 現存하는 塼塔外에도

(ㄱ) 安東錦溪洞多層塼塔 (安東郡豊川面錦溪洞所在)

(ㄴ) 佛靈寺 塼塔 (淸道郡梅田面龍山洞所在)

(ㄷ) 安東場基洞塼塔 (安東郡西後面場基洞所在)

(ㄹ) 安東 開目寺塼塔 (安東郡西後面台庄洞所在)

등이 塼材를 남기고 있다.

註: 3). 東國輿地勝覽에 依하면 그 卷十 衿川佛宇條에 安養寺가 있어

寺之南有高麗太祖所建七層甄塔

이라 있고 卷二十五 榮州古跡條에 「無信塔」이 있고 그 밑에

郡有塔名曰無信恭愍朝鄭習仁爲知郡曰異哉惡木不息盜泉不飲惡其名也烏有巍然其形爲一邑所瞻視而以無信表之者命刻日夷之用其甄修賓館

이라 있고 또 卷四十九 甲山山川條에

白塔洞 有塼塔

이라 있음을 보면 高麗朝에서도 塼塔이 있음을 알겠다.

이 조선(朝鮮)에서 비생산적(非生産的)인 재료(材料)이었음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

고 하셨다. 高先生 말씀대로 전(塼)은 조선(朝鮮)에 있어서는 「하이카라」한 귀중(貴重)한 것이었던 만큼 끝내 유행(流行)을 보지 못하고 석재(石材)로서 그것을 모(模)한 형식(型式)이 출현(出現)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三)

모전석탑(模塼石塔)으로서 가장 고고(高古)한 예(例)로 경주(慶州)의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을 들어야 할 것이다. (圖 1). 분황사탑(芬皇寺塔)은 사기(史記)의 기록(記錄)으로 보아 분황사(芬皇寺) 창건당시(創建當時)의 것으로 보여지며 사면(四面)에 감입(嵌入)된 인왕상(仁王像) 조각수법(彫刻手法)으로도 수궁(首肯)되는바 있다.⁵⁾

이 탑(塔)은 현재(現在) 삼층(三層)이지만 남아 있어 원래(原來)의 층수(層數)가 문제(問題)되고 있는데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의(依)하면 임진란(壬辰亂) 때 왜병(倭兵)에 의(依)하여 반(半)이 헐렸고 그 후(後) 우승(愚僧)이 개축(改築)하려다가 남은 반(半)마저 허러졌다고 하였으나 이 기록(記錄)은 매우 의심(疑心)스럽다⁶⁾.

近年에 와서 1915年 일인(日人)들이 해체수리(解體修理)를 한바 있었는데 當時 第二層과 三層 사이에서 석함(石函)속에 장치(裝置)된 사리구(舍利具)가 발견(發見)되었던 바 그 중(中)에는 창건당시(創建當時)의 것으로 보여지는 장암구(莊嚴具)와 함께 「승령중보(崇嶺重寶)」, 「상평오수(常平五銖)」 등(等)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사용(使用)되던 고전(古錢)이 발견(發見)된 것을 보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개탑(開塔)하였던 사실(事實)을 알겠고 그 후(後) 1915년까지 제삼층(第三層)까지 건재(健在)하였던 것이니 동경잡기(東京雜記)의 기록(記錄)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문제(問題)되는 점(點)은 1915년의 수리(修理當時)의 변형(變形)은 없었을까 하는 점(點)인데 탑신(塔身) 밑에 화강석(花崗石) 받침이 있어 초층(初層) 탑신(塔身)의 평면(平面)은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수리전(修理前)의 구경(舊景)과 사진(寫眞)을 통(通)하여 비교(比較)하여도 대차(大差)없고 보면 문제(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탑(塔)은 야석(野石)으로 축조(築造)한 높이 약(約) 1m의 기단(基壇)을 마련하여 일변(一邊) 장(長) 약(約) 13m의 방형(方形) 기단(基壇) 중심(中心)에 초층(初層) 탑신(塔身)이 놓였는데 그 밑에는 일단(一段)의 화강석(花崗石) 받침돌이 받치고 있다. 그 위에 일변장(一邊長) 약(約) 6.6m 높이 약(約) 4m의 초층탑신(初層塔身)을 축조(築造)하였다. 탑신(塔身)을 구성(構成)한 석재(石材)는 흑갈색(黑褐色)의 안산암(安山岩) 석재(石材)를 전(塼)과 같이 자른 것으로 길이 30cm 내지(乃至) 9cm로 전재(塼材)와 같이 고르지 않다.

4. 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一二三面

5.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第五 善德王條에 三年春正月 芬皇寺成이라 있다.

註： 6). 東京雜記에 다음과 같이 있다.

芬皇寺九層塔 新羅三寶之一也 壬辰之亂 賊毀其半 後有愚僧欲改築之 又毀其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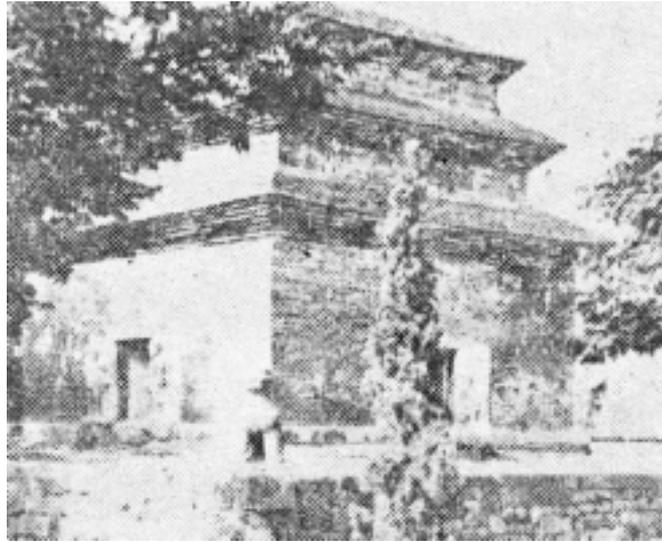


圖 1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

이러한 현상(現狀)은 차중(此種) 모전탑(模塼塔)에서는 공통(共通)되는 일로서 석재(石材)를 가공(加工)하는데서 오는 불가피(不可避)한 제약(制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全體的)으로 보아 충실(忠實)히 전재(塼材)를 모방(模倣)한 석재(石材)로 축조(築造)하여 일견(一見) 전탑(塼塔)과 같은 외견(外見)을 보이고 있다. 초층(初層) 탑신(塔身) 사면(四面)에는 화강석(花崗石)으로 문설주, 하방(下枋), 상방(上枋)을 마련하고 좌우(左右)에 두 쪽 돌 문을 달아서 안으로 밀어서 열게 되어 감실(龕室)을 만들고 있다. 사면(四面)이 모두 내부(內部)가 충새(充塞)되었으나 목조탑과(木造塔婆)가 내부(內部)로 통(通)할 수 있는 구조(構造)로 되어 있는 점(點) 또는 목조탑과(木造塔婆)를 충실(充實)히 변안(變案)한 익산(益山)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石塔)에 있어 사면(四面)에 통로(通路)를 개설(開設)하여 탑(塔) 중심(中心)에서 교차(交叉)되게 한 구조(構造)와 상통(相通)하는 바로 목조탑과(木造塔婆)의 변안(變案)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감실(龕室) 좌우(左右)에는 화강석(花崗石)에 부조(浮彫)한 인왕상(仁王像)이 일구식(一軀式) 嵌入되었는데 이것은 후기(後期)의 전탑(塼塔) 또는 석탑(石塔)으로 연결(連結)되는 양식(樣式)이라 하겠다. 옥개(屋蓋)는 밑에 6단(段)의 받침과 상면(上面)에 10단(段)의 층단(層段)을 두고 있으니 전탑(塼塔)에서만 볼 수 있는 전재(塼材)를 사용(使用)한데서 오는 특이(特異)한 형태(形態)라고 하겠다. 옥개(屋蓋) 추녀의 폭(幅)이 줄어든 점(點)도 전탑(塼塔) 특유(特有)의 형태(形態)이니

- 단층(單層)의 기단(基壇)
- 감실(龕室)의 개설(開設)
- 옥개(屋蓋) 상하(上下)의 층단(層段)
- 옥개(屋蓋) 추녀의 단축(短促)

등(等) 모두 전탑(塼塔)이 가지는 특질(特質)을 구비(具備)하고 있다. 이층이상(二層以上)은 차츰 체감(遞減)되면서 삼층(三層)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程度) 원형(原形)에 충실(忠實)한지는 알 수 없다.

이 분황사(芬皇寺) 석탑(石塔)은 모전탑(模塼塔)으로서 현존(現存)하는 최고(最古)의 유례(類例)이나 이곳에서 동남(東南) 약(約)300m 지점(地點)에 이와 거의 같은 시기(時

期)로 추정(推定)되고 있다. 등도해치랑박사(藤島亥治郎博士)는 이 유구(遺構)에 대(對)하여

(1) 안산암(安山岩)의 소석재(小石材)를 사용(使用)하고 중국전탑(中國磚塔)을 모(模)한 것.

(2) 금강역사(金剛力士)를 조각(彫刻)한 평석(平石)은 폭(幅) 3.2척(尺) 고(高) 4.43척(尺)으로 미석(楣石)을 가(架)하기 위(爲)하여 상부(上部)를 소결(小缺)한 점(點)에 이르기까지 분황사(芬皇寺) 탑(塔)과 동일(同一)한 점(點)(분황사(芬皇寺) 탑(塔)에 있어서는 폭(幅) 2.45척(尺) 고(高) 4.4척(尺))

(3) 금강역사(金剛力士)의 양식기교(樣式技巧)가 모두 분황사(芬皇寺)의 그것과 흡사(酷似)하고 예술적(藝術的) 가치(價値)에 있어서 그에 못지 않아 제작연대(製作年代) 또한 동기(同期)로 인정(認定)되는 점(點).

(4) 토단(土壇)의 대(大)는 약(約) 40척(尺) 평방(平方)으로서 분황사탑(芬皇寺塔)기단(基壇)의 대(大)와 약동(略同)한 점(點).

이상(以上) 사점(四點)에서 筆者는 본탑(本塔)의 형상양식(形狀樣式)을 분황사(芬皇寺) 탑(塔)과 동일(同一)한 것이었다고 믿고 싶으며 건립연대(建立年代) 또한 분황사(芬皇寺) 석탑(石塔)과 전후(前後)하는 것으로 이탑중(二塔中) 어느 것이 타탑(他塔)을 모조(模造)하였을 것이다. (고유섭저(高裕燮著) 한국미술사급미학론고(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 第 125 면(面)에서 인용(引用))

이상(以上)과 같이 보고 있어 거의 같은 시기(時期)에 인접(隣接)해서 이기(二基)의 모전석탑(模磚石塔)이 건립(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하(如何)든 분황사(芬皇寺) 탑(塔)은 상당(相當)한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한 과정(科程)을 거치면서 석재(石材)를 전(塼)과 같이 가공(加工)하고 전조(塼造)할 때와 같은 공정(工程)을 거치면서 이루어졌으니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하는데 가장 충실(忠實)한 형태(形態)라고 할 수 있다. 필자(筆者)는 이러한 류(類)의 모전탑(模磚塔)을 「모전석탑(模磚石塔) 제일류(第一流)」라고 부르고저 한다.

(四)

(제일류)第一類에 속(屬)하는 모전탑(模磚塔)은 지역(地域)과 시대(時代)를 달리하면서 축조(築造)되었다. 현존(現存) 혹(或)은 과거(過去)에 확인(確認)되었으나 현재(現在)는 인멸(湮滅)된 예(例)를 열거(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1) 영양(英陽) 현동(縣洞) 오층석탑(五層石塔)
경북(慶北) 영양군(英陽郡) 영양면(英陽面) 현동(縣洞)
- (2) 영양(英陽) 봉감동(奉甘洞) 오층석탑(五層石塔)
경북(慶北) 영양군(英陽郡) 영양면(英陽面) 봉감동(奉甘洞)
- (3) 영양(英陽) 삼지동(三池洞) 석탑(石塔)
경북(慶北) 영양군(英陽郡) 영양면(英陽面) 삼지하(三池河)
- (4) 정암사(淨巖寺) 칠층석탑(七層石塔) 수마리탑(水瑪璃塔))
강원(江原) 정선군(旌善郡) 동면(東面) 고오리(古汙里)
- (5) 제천(堤川) 교리(校里) 석탑(石塔)
충북(忠北) 제천군(堤川郡) 청풍면(淸風面) 교리(校里)

- (6) 제천(堤川) 장락리(長樂里) 칠층석탑(七層石塔)
충북(忠北) 제천군(堤川郡) 제천읍(堤川邑) 장락리(長樂里)
- (7) 군위(軍威) 남산동(南山洞) 석탑(石塔)
경북(慶北) 군위군(軍威郡) 부계면(缶溪面) 남산동(南山洞)
- (8) 안동(安東) 대사동(大寺洞) 석탑(石塔) (圖 2)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길안면(吉安面)
- (9) 상주(尙州) 상병리(上丙里) 석심회피탑(石心灰皮塔) (금망(今亡))
경북(慶北) 상주군(尙州郡) 외남면(外南面) 상병리(上丙里)

이상(以上)의 예(例)들은 원형(原形)을 보존(保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大部分) 완형(完形)을 보유(保有)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일반(一般) 석탑(石塔)에 비(比)하여 재료(材料)에서 오는 안전도(安全度)의 결여(缺如)로 인(因)한 불가피(不可避)한 제약(制約)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大體)의 양식(樣式) 수법등(手法等)은 볼 수 있을 정도(程度)로서 이들을 일관(一觀)하여 보면

(1) 영양(英陽) 현동(縣洞) 오층석탑(五層石塔)은 전고(全高) 약(約) 7m의 거탑(巨塔)으로서 석재(石材)를 전(塼)과 같이 잘라서 중적(重積)한 점(點)은 분황사탑(芬皇寺塔)과 같으나 모전재(模塼材) 자체(自體)가 장광(長廣)이 고르지 않다. 초층탑신(初層塔身) 동면(東面)에 감실(龕室)을 개설(開設)하였는데 문주좌우(門柱左右)에 인동당초(忍冬唐草)를 조각(彫刻)한 화강석주(花崗石柱)를 세운 점(點)은 분황사탑(芬皇寺塔)의 인왕상(仁王像)가 대조(對照)되는 바 있다. 단층(單層) 석축기단(石築基壇)인 점(點). 옥개(屋蓋) 평면(平面)의 단축(短促)함, 옥개(屋蓋) 상하(上下)의 층계(層階) 또는 감실(龕室)의 개설등(開設等) 모두 전탑(塼塔)의 특징(特徵)을 갖추고 있으나 전탑재(塼塔材) 자체(自體)에서 오는 감각(感覺)의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全體的)으로 둔중(鈍重)한 느낌을 준다. 문주(門柱)의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조각수법(彫刻手法)도 약간(若干) 소대(素大)하여 이 탑(塔)의 제작연대(製作年代)는 나말여초(羅末麗初)로 推定된다.

(2) 영양(英陽) 봉감동(奉甘洞) 오층석탑(五層石塔)은 전고(全高) 8m여(餘)의 대작(大作)으로 낙동강(洛東江) 상류(上流)가 감도는 돌출부(突出部)에 위치(位置)한다. 용재(用材)나 수법(手法)이 전자(前者)와 거의 유사(類似)하나 모전재(模塼材)의 가공수법(加工手法)이 전자(前者)보다는 약간(若干) 정교(精巧)하다. 초층탑신(初層塔身) 동면(東面)에 감실(龕室)을 개설(開設)하였는 바 입주(立柱)와 미석(楣石)은 화강석(花崗石)이고 조각(彫刻)은 없다.

전자(前者)보다는 제작연대(製作年代)가 올라갈듯 하나 역시(亦是) 나말(羅末) 여초(麗初)의 소작(所作)으로 추정(推定)된다.

(3) 영양(英陽) 삼지동(三池洞) 석탑(石塔)은 산중복(山中腹)에서 돌출(突出)된 자연암석(自然岩石) 위에 건립(建立)되었는 바 비교적(比較的) 정제(整齊)된 모전재(模塼材)를 사용한 전고(全高) 약(約) 4m의 이층(二層)까지 남은 석탑(石塔)이다. 이층탑(二層塔)의 유례(遺例)가 없어 이것이 원형(原形)이 아닌 듯이 보여지나 원래(原來) 및 층(層)이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초층(初層) 탑신(塔身) 남면(南面)에 감실(龕室)을 개설(開設)하였으나 화강석재(花崗石材)를 사용(使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옥개(屋蓋) 정부(頂部)에 화강석재(花崗石材)의 상륜일부(相輪一部)가 남아 있어 여기서도 일부(一部)에서 화강석(花崗石)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 석탑(石塔)은 석축기단(石築基壇) 대신 자연암석(自然岩石)을 이용(利用)한 점(點)이 전(前) 이탑(二塔)과 다르나 전(前) 이탑

(二塔)이 기단(基壇) 위에 초층탑신(初層塔身)을 받기 위(爲)하여 일단(一段) 혹(或)은 이단(二段)의 화강석재(花崗石材)의 편평(扁平)한 괴임을 마련한 점(點) 분황사(芬皇寺) 석탑(石塔)과 동일(同一)하며 자연석탑(自然石塔)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한 후자(候者)의 예(例)도 모전탑(模塼塔)이나 일반형(一般形) 석탑(石塔)에서 동일(同一)한 작례(作例)를 찾을 수 있는 점(點)으로 보아 이것이 모전석탑(模塼石塔)에만 국한(局限)된 특수(特殊)한 형태(形態)는 아니다⁷⁾.

(4) 정암사(淨巖寺) 칠층석탑(七層石塔)은 전고(全高) 약(約) 9m로 가장 완전(完全)한 형태(形態)를 보이고 있다. 청동제(靑銅製)의 상륜부(相輪部)까지 구존(俱存)하고 있는데 이 탑(塔)에서 주목(注目)되는 바는 첫째 육단(六段)으로 구성(構成)한 화강석재(花崗石材)의 기단(基壇)이 있는 점(點)이다.

일반적(一般的)인 개념(概念)이 전탑(塼塔) 혹(或)은 모전탑(模塼塔)에 있어서는 야석(野石)을 사용(使用)한 토석혼용(土石混用)의 기단(基壇)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이같이 가공(加工)된 석재(石材)만을 이용(利用)한 점(點)은 특이(特異)하다. 둘째 모전재(模塼材)가 매우 정제(整齊)된 점(點)이다. 물론(勿論) 대소(大小)는 전(塼)과 같이 규격(規格)이 동일(同一)하지 않지만 비교적(比較的) 고르고 가공(加工)이 매우 정교(精巧)하다. 셋째로 초층(初層) 탑신(塔身) 남면(南面)에 감형(龕形)이 있어 문주(門柱)와 미석(楣石)을 화강석(花崗石)으로 세우고 문비(門扉)는 일매(一枚) 판석(板石)에 음각중선(陰刻縱線)을 중앙(中央)에 그어서 이매(二枚)임을 표시(表示)한 점(點)이다. 문틀을 화강석(花崗石)으로 만든 점(點)은 타탑(他塔)에서도 보아온 바이고 좌우(左右) 문비(門扉)의 표시(表示)를 음각(陰刻) 중선(縱線)으로 나타낸 것은 분황사탑(芬皇寺塔)에 비(比)해 퇴화(退化)의 과정(科程)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

(5) 제천(堤川) 교리(校里) 석탑(石塔)은 원래(原來) 칠층(七層)까지 있었다고 하나 약(約) 30년 전(前) 사리(舍利) 도취(盜取)로 파괴(破壞)되어 현재(現在) 초층탑신(初層塔身)의 서면(西面) 우(隅)만이 잔존(殘存)한다. 따라서 상세(詳細)한 양식(樣式)은 알 수 없으나 고(高) 약(約) 1.1m 폭(幅) 약(約) 4m의 화강석(花崗石) 장석(長石)으로 축조(築造)한 기단(基壇)이 설치(設置)된 점(點)이 주목(注目)된다. 이러한 형식(形式)은 정암사(淨巖寺) 탑(塔)과도 상통(相通)하는 바 있다. 탑신부(塔身部)를 구성(構成)한 석재(石材)는 장광(長廣)이나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조야(粗野)해 보인다.

(6) 제천(堤川) 장락리(長樂里) 칠층석탑(七層石塔)은 고(高) 9m여(餘)로 거의 완형(完形)을 보존(保存)하고 있다. 다만 사리도취(舍利盜取) 때문에 초층탑신(初層塔身)과 이층(二層) 탑신(塔身)의 일부(一部)가 파손(破損)되었고 상륜부(相輪部)의 일부(一部)를 상실(喪失)하였을 뿐이다. 모전재(模塼材)도 비교적(比較的) 균일(均一)한 외형(外形)을 보이고 초층탑신(初層塔身) 사면(四面)에 감실(龕室)을 개설(開設)하되 남북(南北) 이면(二面)은 화강석(花崗石)으로 문주(門柱)와 미석(楣石)을 가설(架設)하고 동서(東西) 이면(二面)은 모전재(模塼材)로 짜 올렸고 각우(各隅)에도 화강석주(花崗石柱)를 세우고 있는 점(點) 등(等) 분황사(芬皇寺) 석탑(石塔)과 유사(類似)한 점(點)을 많이 볼 수 있다. 기단부(基壇部)는 화강석재(花崗石材)를 다듬어서 지대석(地臺石)을 삼아 탑신(塔身)을 받고 있다⁹⁾.

7. 以上 三塔은 考古美術 第四卷 十一號(1963) 尹容鎭 慶北 英陽郡의 塔像(一) 參照 註 : 8. 鄭永鎬 「淨巖寺 水瑪瑙塔의 調査」(考古美術 第一卷 第三號, 1960)
9. 以上 二塔은 鄭永鎬 「堤川의 模塼石塔二基」(考古美術 第一卷 第二卷,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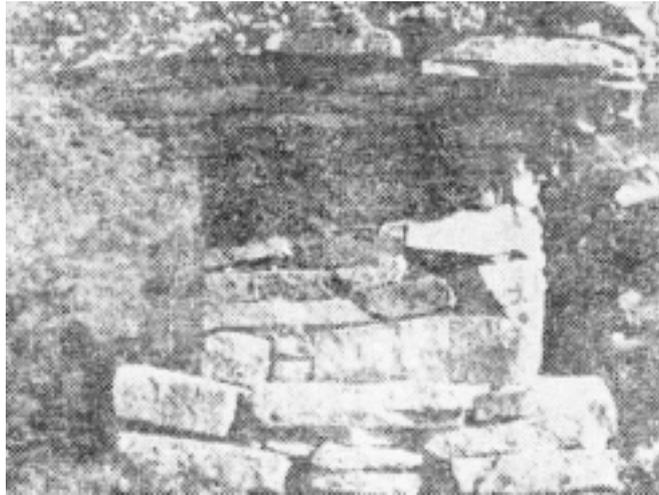


圖 2 안동(安東) 대사동(大寺洞) 석탑(石塔)

(7) 군위(軍威) 남산동(南山洞) 석탑(石塔)은 토석축(土石築)의 단층(單層) 기단(基壇) 위에 축조(築造)되었으나 현재(現在)의 형태(形態)가 원형(原形)은 아닌 듯 하다. 일층(一層)만이 현존(現存)하는 이 탑(塔)은 비교적(比較的) 정제(整齊)된 형태(形態)로 가공(加工)된 전형(塲形) 석재(石材)를 사용(使用)하고 있다.

(8) 안동(安東) 대사동(大寺洞) 석탑(石塔)은 가장 소규모(小規模)이고 조야(粗野)하다. 전고(全高) 불과(不過) 3m로 화강석재(花崗石材)를 이용(利用)하여 외면(外面)만 고르게 하여 단층(單層)만 쌓았다. 자연(自然) 암석(岩石)위에 탑신(塔身)과 같은 석재(石材)로 단층(單層) 기단(基壇)위에 탑신(塔身)을 올렸고 옥개(屋蓋)도 갖추었으나 받침의 층단(層段)은 명료(明瞭)하지 않다¹⁰⁾.

(9) 상주(尙州) 상병리(上丙里) 석심회피탑(石心灰皮塔)은 지금 완전(完全)히 인멸(湮滅)되었으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제사권급(第四卷及) 기타(其他)에 구경(舊景)이 남아있고 조사자(調査者)의 기록(記錄)을 통(通)하여 형태(形態)의 대강(大綱)을 알 수 있다. 관야(關野) 정박사(貞博士)는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차탑(此塔)은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의 서남일리반(西南一里半) 외남리(外南里) 상병리(上丙里)에 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있어 석심토포탑(石心土皮塔)의 유일(唯一)의 실례(實例)이다. 규모(規模) 매우 적어서 초층(初層)의 넓이 남면(南面) 4척(尺) 5촌(寸) 동서(東西) 4척(尺) 3촌(寸) 3분(分) 고(高) 19척(尺) 지금 육중(六重)이 남아 있다. 아마도 당초(當初)는 칠중(七重)이 있을 것이다. 기석(基石)은 매우 조대(粗大)하고 탑신(塔身)은 대소(大小)의 안산암재(安山岩材)(두꺼운 것은 34촌(寸) 얇은 것은 1촌(寸) 저변(底邊) 가까히는 7·8촌(寸)되는 것도 있고 장(長) 5·6촌(寸)급지(及至) 2척허(尺許)를 쌓았고 초층(初層) 남면(南面) 하부(下部)에 광(廣) 6촌(寸) 5분(分) 고(高) 약(約) 9촌(寸)의 소공(小孔)을 개설(開設)하였다. 추녀 끝에는 같은 석재(石材)를 삼사중(三四重) 올려서 받침을 삼고 그 위에 얇은 판석(板石)을 수회(數回) 덮어서 지붕을 삼았다. 제이층(第二層) 탑신(塔身)은 얇고 추녀와 함께 차례(次第)로 감쇄(減殺)되어 그 권형(權衡) 안동읍(安東邑) 칠중전탑(七重塲塔)과 약간(若干) 닮았다. 당초(當初)에는 전부(全部) 표면(表面)에 흙을 바르고 다시 그 위에 저□(亭□)을 넣은 석회(石灰)를 바른

10). 拙稿 「安東 吉安面 模塲塔考」(古美術 第六卷 第三·四虎, 1965)

것이었으나 대부분(大部分) 삭락(削落)되어 지금 다만 동면(東面) 제이층(第二層)에 그 형적(形迹)을 남길 뿐이다.

이 탑(塔) 옆에서 약(約) 천이백오십년전경(千二百五十年前頃)으로 推定되는 파와(巴瓦)를 얻었으니 연대(年代)를 추정(推定)하는 유력(有力)한 자료(資料)로 삼을 것이다. 신라시대(新羅時代)의 탑과(塔婆)는 석조(石造)가 가장 보편적(普遍的)이고 전축(塼築) 또한 왕왕(往往) 있으나 석심토피(石心土皮)의 것은 오로지 차일탑과(此一塔婆)가 있을뿐 구조(構造)는 조(粗)하나 매우 진기(珍奇)난 유구(遺構)이다¹¹⁾.

이상(以上)으로 그 특이(特異)한 구조(構造)를 알 수 있으니 석심(石心)의 구성(構成)은 결국(結局)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것이고 화강석(化崗石)의 단층(單層) 기단(基壇), 옥개상하(屋蓋上下)의 층단(層段), 형식적(形式的)이나마 초층(初層) 탑신(塔身)에 감형(龕形) 개설(開設), 옥개(屋蓋) 추녀 폭(幅)의 단축등(短促等) 일견(一見) 모전탑(模塼塔)임을 알 수 있다.

이상(以上) 제일류(第一類)에 속(屬)하는 탑(塔)을 통관(通觀)한 결과(結果) 공통점(共通點)을 볼 수 있는 동시(同時)에 스스로 정조(精粗)의 차(差)를 볼 수 있다. 공통점(共通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기단(基壇)은 토석혼용(土石混用) 또는 화강석재(化崗石材)로 축조(築造)하되 단층(單層)이다.

(2) 탑신(塔身)을 받기 위(爲)하여 화강석(化崗石)의 받침을 놓고 있다. 이 형식(形式)은 분황사(芬皇寺塔)에서 가장 전형적(典型的)으로 나타나고 이와같이 균정(均整)히 가공(加工)된 모전재(模塼材)로 축조(築造)된 탑(塔)에서 볼 수 있는 형식(形式)이다.

(3) 감실(龕室)을 개설(開設)하였다. 그 수(數)도 사면(四面) 혹은(或)은 일면(一面)으로 차(差)가 있으나 사면(四面)에 모두 개설(開設)함이 본의(本意)에 맞는 것이고 보편 일면(一面)에만 개설(開設)함은 약화(略化)된 형식(形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의(留意)할 점(點)은 감실(龕室) 개설(開設)에 있어 문주(門柱), 미석등(楣石等)은 화강석(化崗石)을 이용(利用)하고 있는 점(點)이다.

이상(以上)의 공통점(共通點)을 보면 분황사(芬皇寺) 탑(塔)의 형식(形式)을 조형(祖型)으로 모두 그 형식(形式)을 따르고 있음을 알겠고 분황사(芬皇寺) 탑(塔)보다 후대(後代)의 건축(建築)이기는 하지만 안동지방(安東地方)의 순수전탑(純粹塼塔)의 형식(形式)과도 상통(相通)하는 바 있다. 이와같은 공통점(共通點) 중(中)에서 화강석(化崗石)을 각부분(各部分)에 사용(使用)하고 있는 점(點)이 주의(注意)되는데 고유섭선생(高裕燮先生)은 그 이유(理由)가 석탑(石塔)에 대(對)한 애착(愛着)의 발로(發露)이니 이것을 가지고 순수(純粹)한 전탑(塼塔)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¹²⁾.

註： 11). 關野 貞 「朝鮮の建築と藝術」 第五一面

12). 高裕燮先生은 「朝鮮의 塼塔에 對하여」(韓國美術史及 美學論攷 所收)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안동郡內에 있는 塼塔은 朝鮮에 있는 塼塔中 最古의 것이며 優秀한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新世洞의 七層塔婆가 代表的인 것이다. (中略) 이 塔은 統初의 代表的 塼塔이나 또하 純粹한 塼塔은 아니다. 그것이 基壇에서 證明된다. 卽 基壇은 元來 二層이었던 듯 하여 上段은 지금 砵頭型으로서 補強하여 매우 體制가 나쁘지만 그것은 別問題로 하여 下壇은 化崗石으로서 構成하고 있다. 高 二尺六寸四分 幅 二尺七寸大의 板石에 天部의 坐像을 遶勁히 浮彫한 돌을 前後 都合 十八枚를 세우고 있는데 이 같은 基壇은 地面으로부터 塼으로 築上하는 中國의 塼塔 意識과 小異한 것으로 卽 이곳에 朝鮮의인 돌에의 意識이 未練스럽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事實은 같은 邑內의 他 一塔에 依하여서도 證明되는 것이다. 卽 邑南에 있는 五重塼塔인데 (中略) 基壇이 또한 岩石이며 塔身의 地覆石에 花崗石을 利用하고 龕室 入口의 椽框도 花崗石으로서 만들고 있는 點은 아무리 하여도 돌을 잇질 수 없었던 造型이다. 이같은 돌에의 未練이라 할까 愛着이라 할까 그것은 要컨대

다음 수법(手法)의 정조(精粗)의 차(差)를 보면 대체(大體)로 분황사(芬皇寺) 탑(塔)과 같은 수법(手法) 즉(卽) 대소(大小)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석재(石材)를 전형(塲形)으로 가공(加工)하여 사용(使用)하였으나, 안동대사동(安東大寺洞), 상주상병리(尙州上丙里)의 제탑(堤塔)은 석재(石材)를 편평(扁平)하게만 잘랐을 뿐 거의 야석(野石)에 가까운 석재(石材)를 사용(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탑(二塔)과 타(他) 칠탑(七塔)과의 정조(精粗)의 차(差)는 곧 식별(識別)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상주탑(尙州塔)이 표면(表面)에 회(灰)를 칠했던 흔적(痕迹)이 남아 있는 점(點)으로 동류(同類)의 것이며 이들은 틀림없이 구별(區別)되는 하나의 형식(形式)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일류(第一類)를 두 가지 형식(形式)으로 나누어 분황사탑계(芬皇寺塔系)를 「제일류(第一類) A형(型)」으로 상주탑계(尙州塔系)를 「제일류(第一類) B형(型)」으로 구분(區分)하고자 한다.

(五)

이상(以上)과 같은 제일류(第一類)의 형식(型式)과 명확(明確)히 구별(區別)되는 모전석탑(模塲石塔)의 일군(一群)이 있어 의성(義城) 탑리(塔里) 오층석탑(五層石塔)이 이들을 대표(代表)하고 있다. (圖 3.)



圖3 의성탑리오층석탑(義城塔里五層石塔)

의성(義城) 탑리(塔里) 오층석탑(五層石塔)은 단층(單層)의 건축기단(建築基壇)을 마련하고 그 위에 초층(初層) 탑신(塔身)은 사개(四個)의 우주(隅柱)와 그 사이의 면석(面石)을 별석(別石)으로 하였으며 우주(隅柱) 위에는 좌두(坐斗)를 얹고 액방(額枋), 향방(桁枋)을 얹어 목조건물(木造建物)을 모(模)하였고 남면(南面)에는 감실(龕室)을 개설(開

塲의 使用法을 充分히 消化 못한 곳에서 起因하였다고 할 것이다」.

設)하였는데 내부(內部)는 충색(充塞)되었고 하방(下枋) 좌우(左右)에는 방형(方形) 석재(石材)가 두출(斗出)되어 또한 목조건축(木造建築)을 모(模)하였다. 옥개(屋蓋)는 수매(數枚)의 판석(板石)을 사용(使用)하였으나 상하(上下)에 층단(層段)을 두어 전탑(塼塔)의 형태(形態)를 충실(充實)히 모(模)하였다.

이 탑(塔)은 석재(石材)를 전형(塼形)으로 가공(加工)하여 전탑(塼塔) 축조(築造)와 같은 공정(工程)을 거친 제일류(第一類)의 형식(形式)과는 달리 일반형(一般型) 석탑(石塔)과 같은 축조형식(築造形式)을 따랐으나 외형(外形)만은 전탑(塼塔)과 같은 형식(形式)을 따랐다. 따라서 옥개(屋蓋) 낙수면(落水面)의 층단(層段)만 없으면 일반(一般) 석탑(石塔)과 같을 것이지만 단층기단(單層基壇)이나 옥개(屋蓋) 추너 폭(幅)의 단축(短促)함과 아울러 옥개석(屋蓋石) 상면(上面)의 층단(層段)은 틀림 없이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것이다. 이 탑(塔)이 우리나라 석탑양식(石塔樣式)의 정립(定立) 과정(過程)에 있어 전형양식(典型樣式)보다 앞서는 위치(位置)에 있고 모전형식(模塼形式)이 있는 점(點)에서 전탑이후(塼塔以後)에 조성(造成)된 탑(塔)임을 볼 때 제일류(第一類)의 형식(形式)과는 달리 전탑(塼塔)에서 석탑(石塔)으로 이행(移行)하는 중간(中間)에 위치(位置)하는 예(例)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탑(塔)이 제일류(第一類)와 같이 충실(充實)히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양식(樣式)과는 구별(區別)되는 바 명료(明瞭)함으로 이 일군(一群)의 석탑(石塔)을 제일류(第一類)와 구별(區別)하여 「제이류(第二類)」로 정(定)하고자 한다.

이 류(類)에 속(屬)하는 예(例)를 열거(列舉)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의성(義城) 빙계동(氷溪洞) 오층석탑(五層石塔)
경북(慶北) 의성군(義城郡) 춘산면(春山面) 빙계동(氷溪洞)
- (2) 죽장사지(竹杖寺址) 오층석탑(五層石塔)
경북(慶北) 선산군(善山郡) 선산면(善山面) 죽장동(竹杖洞)
- (3) 선산(善山) 낙산동(洛山洞)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선산군(善山郡) 해평면(海平面) 낙산동(洛山洞)
- (4)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계(茸長溪)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월성군(月城郡) 내남면(內南面)
- (5) 경주(慶州) 오야리(吾也里)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월성군(月城郡) 천북면(川北面) 오야리(吾也里)
- (6) 경주(慶州) 남산리(南山里)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경주시(慶州市) 남산리(南山里)
- (7) 경주(慶州) 서악리(西岳里)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경주시(慶州市) 서악리(西岳里)
- (8) 청원(淸原) 영하리(靈下里) 석탑(石塔) (파탑(破塔))
충북(忠北) 청원군(淸原郡) 북삼면(北三面) 영하리(靈下里)
- (9) 안동(安東) 하리동(下里洞) 삼층석탑(三層石塔)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풍산면(豊山面) 하리동(下里洞)
- (10) 월남사지(月南寺址) 모전석탑(模塼石塔)
전남(全南) 강진군(康津郡) 성전면(城田面) 월남리(月南里)
- (11) 다탑봉(多塔峰) 석탑(石塔)
전남(全南) 화순군(和順郡) 도암면(道巖面) 운주리(雲住里)

이상(以上)과 같이 의성(義城) 탑리(塔里) 탑(塔)을 합(合)하여 십이례(十二例)를 들 수 있는바 의성(義城) 탑리(塔里) 탑(塔)만이 목조건축(木造建築)의 세부(細部)를 번안(翻案)한 흔적(痕迹)을 볼 수 있을 뿐 그 외(外)의 탑(塔)에서는 제일류(第一類)에서 지적(指摘)한 특징(特徵)과 닮이 없는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어 공통(共通)된 외형(外形)을 가졌고 다만 규모(規模)의 대소(大小)나 세부(細部)의 양식(樣式)에서 다소(多少)의 특색(特色)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가령 의성(義城)의 이탑(二塔)이나 선산(善山)의 이탑(二塔)은 8m 내지(乃至) 9m의 대탑(大塔)이지만 기지(其地)의 탑(塔)들은 7m 이하(以下)의 적은 대소(大小)의 차이(差異), 기단(基壇) 형식(形式) 즉(卽) 의성(義城) 탑리(塔里) 탑(塔)과 같은 건축기단(建築基壇), 또는 경주(慶州) 남산리(南山里) 탑(塔) 류(類)의 육면입방체(六面立方體)의 기단(基壇), 또는 경주(慶州) 오야리(吾也里) 탑(塔)과 같이 자연암석(自然岩石)을 이용(利用)한 기단등(基壇等)의 차이(差異), 혹은(或)은 감실(龕室) 형식(形式)에 있어 형식적(形式的)이나마 실제(實際)로 개설(開設)한 예(例)가 있는가 하면 탑신(塔身)에 문호형(門戶形)만을 조각(彫刻)한 형식적(形式的)인 것이 있는 등등(等等)의 차이(差異)를 볼 수 있다. 이 제이류(第二類)에 속(屬)하는 탑(塔)의 제례(諸例)를 개관(概觀)하기로 한다.

(1) 의성(義城) 빙계동(氷溪洞) 오층석탑(五層石塔)은 높직한 단층기단(單層基壇) 위에 세워진 탑(塔)으로서 탑리(塔里) 오층석탑(五層石塔)을 모방(模倣)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단(基壇)이나 탑신부(塔身部)의 형태(形態)에서 유사점(類似點)을 많이 볼 수 있으나 부분적(部分的)으로 약화(略化)된 점(點)을 볼 수 있으니 탑리(塔里) 탑(塔)에서 볼 수 있는 우주(隅柱) 위의 좌두(坐斗)의 생략(省略), 감실(龕室) 연광(椽框)의 약식화(略式化), 옥개(屋蓋) 상하(上下) 층단수(層段數)의 감소(減少)와 이에 따르는 전체(全體) 규모(規模)의 저소(低小) (탑리(塔里) 탑(塔)은 전고(全高) 9.56m 기단(基壇) 폭(幅) 4.51m임에 비(比)하여 이 탑(塔)은 전고(全高) 8.15m 기단(基壇) 폭(幅) 4.06m 임) 등(等)을 들 수 있다.

(2) 죽장사지(竹杖寺址) 오층석탑(五層石塔)은 높이 11m를 넘는 규모(規模)가 큰 탑(塔)으로서 상층(上層) 기단(基壇)이 붕괴(崩壞)되어 단층기단(單層基壇) 같이 보이거나 원래(原來) 석비(石扉)가 있었던 듯 하나 지금은 없다. 옥개(屋蓋) 상하(上下)에 층단(層段)을 두고 있는 점(點)은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하였음이 뚜렷하고 옥개(屋蓋)는 추녀 폭(幅)이 비교적(比較的) 넓은 편(便)이다.

(3) 선산(善山) 낙산동(洛山洞) 삼층석탑(三層石塔)은 이층(二層) 기단(基壇) 위에 건립(建立)되었음은 전기(前記) 죽장사지(竹杖寺址) 탑(塔)과 한가지 모전탑(模塼塔)으로서 특이(特異)한 구조(構造)이며 초층탑신(初層塔身)의 구성(構成), 감실(龕室)의 형태등(形態等) 또한 전기(前記) 죽장사지(竹杖寺址) 탑(塔)을 따르고 있다. 옥개(屋蓋)의 상하(上下)에 층단(層段)이 있음은 통례(通例)에 속(屬)한다¹³⁾.

(4)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계(茸長溪) 삼층석탑(三層石塔)은 倒壞되어 있으나 이를 復原 製圖한 結果 삼층석탑(三層石塔)임이 밝혀졌다. 전고(全高) 약(約) 4.8m의 소규모(小規模)의 탑(塔)인데 옥개(屋蓋) 상하(上下)에 층단(層段)이 있음으로 해서 모전탑(模塼塔)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탑(塔)에서 주목(注目)되는 바는 기단(基壇)의 형태

註： 13). 善山의 二塔에 對하여는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一五一面 乃至 第一五三면과 寫眞 三八號 及 40號, 高裕燮 遺著 「韓國塔婆의 研究—各論 草稿」(考古美術同人會判 考古美術資料 第十四輯) 一二八 乃至 一三二面 參照

(形態)인데 팔매(八枚)로 구성(構成)한 고(高) 약(約) 30cm 고일변(高一邊) 2.7m의 지대석(地台石)이 있고 그 위에 고(高) 약(約) 1.15m 폭(幅) 1.9m의 기단(基壇)을 구성(構成)하였는데 기단(基壇)은 상하(上下) 같은 폭(幅)으로 하층(下層) 고(高) 약(約) 36cm 상층(上層) 고(高) 약(約) 79cm의 이단(二段)을 각각(各各) 사개식(四個式)의 방형(方形) 가공석재(加工石材)로서 구축(構築)하였다. 차종(此種) 석탑(石塔)의 기단형식(基壇形式)으로는 매우 이례적(異例的)이다¹⁴⁾.

(5) 경주(慶州) 오야리(吾也里) 삼층석탑(三層石塔)은 총고(總高) 약(約) 2.5m의 소탑(小塔)이다. 제삼층(第三層) 탑신(塔身)과 상윤부(相輪部)가 전실(全失)되었다. 초층(初層) 탑신(塔身) 남면(南面)에 감실(龕室)이 개설(開設)되었고 옥개(屋蓋) 상면(上面)은 층단(層段)을 이루었다. 이 탑(塔)에서 주목(注目)되는 바는 건축기단(建築基壇) 대신 자연암석(自然岩石)을 이용(利用)하고 있는 점(點)이다. 제일류(第一類)의 영양(英陽) 삼지동(三池洞) 석탑(石塔)도 자연암석(自然岩石)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하고 있어 공통점(共通點)을 볼 수 있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자연암석(自然岩石)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한 예(例)는 일반형(一般型) 석탑(石塔)에서도 볼 수 있어 따로 논(論議)되어야 할 과제(課題)라고 본다¹⁵⁾. (圖4)

(6) 경주(慶州) 남산리(南山里) 삼층석탑(三層石塔).

(7) 경주(慶州) 서악리(西岳里) 삼층석탑(三層石塔) 이상(以上)의 이기(二基)는 전자(前者)가 높이 7m이고 후자(後者)가 5m로 규모(規模)의 차(差)가 있기는 하나 같은 양식(樣式)의 탑(塔)이다. 기단(基壇)은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계(茸長溪) 탑(塔)과 같이 석괴형(石塊形)으로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을 보이고 있다. 모전석탑(模塼石塔) 특유(特有)의 옥개(屋蓋)상하(上下)에 층단(層段)을 이룬 점(點)은 공통(共通)되나 서악리(西岳里) 탑(塔)에는 초층탑신(初層塔身) 남면(南面)에 얇은 감형(龕形)을 개설(開設)하고 문비형(門扉形)을 조각(彫刻)하였으며 감형(龕形)을 양측(兩側)에는 인왕상(仁王像)을 양각(陽刻)한 점(點) 분황사(芬皇寺) 탑(塔)을 모방(模倣)하였다고 할 것이다¹⁶⁾.

(8) 청원(淸原) 영하리(靈下里) 석탑(石塔) (파탑(破塔))으로 현재(現在) 5개(個)의 옥개석(屋蓋石)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원래(原來) 오층탑(五層塔) 상하(上下)에는 층단(層段)이 있다고 하니 모전탑(模塼塔)의 특색(特色)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기타(其他) 상세(詳細)한 수법(手法)은 알 수 없다¹⁷⁾.

(9) 안동(安東) 하리동(下里洞) 삼층석탑(三層石塔)은 고(高) 3.5m의 소규모(小規模) 탑(塔)으로서 석질(石質)도 좋지 않다. 기단(基壇)은 단층(單層) 옥신(屋身)과 옥개(屋蓋)는 각층(各層) 일석(一石)으로 되었고 옥신(屋身)은 타탑(他塔)에 비(比)하여 높은 편(便)이어서 전체(全體) 형태(形態)가 고준(高峻)해 보인다. 상윤부(相輪部)에 양화(仰花)가 남아 있어 희귀(稀貴)하다¹⁸⁾.

(10) 월남사지(月南寺址) 모전석탑(模塼石塔)은 단층기단(單層基壇) 위의 삼층탑(三層塔)으로서 각층(各層) 옥개석(屋蓋石) 받침은 삼단(三段)으로 부여(夫餘) 정림사지(定林寺址) 석탑(石塔)의 양식(樣式)을 모(模)하였고 낙수면(落水面)은 삼단(三段)의 층단

14. 朝鮮總督府 「慶州 南山の佛蹟」 五六・五七面 及 圖版 第70 下段

15. 朴日薰 「月城郡 吾也里 三層石塔」(考古美術 第五卷 第五號)

16. 國寶圖錄 第五輯

17. 李殷昌 「淸原郡 靈下里 石像」(考古美術 第五卷 第四號)의 註一

註： 18. 藤島玄治郎 「朝鮮慶尙北道 安東郡 及び 榮州郡に 於ける 新羅時代 建築に就いて」(建築雜誌 昭和九年 七月號)

(層段)을 이루고 있다. 이 탑(塔) 역(亦) 탑신(塔身)이 높아서 고준(高峻)한 감(感)을 주니 고려시대(高麗時代) 석탑(石塔)의 일반적경향(一般的傾向)이라고 할 것이다¹⁹⁾.

(11) 다탑봉(多塔峰) 석탑(石塔)은 이곳에 집중(集中)되어 있는 십육기(十六基)의 석탑중(石塔中) 하나이다. 기단(基壇)은 상면(上面)을 약간(若干) 가공(加工)한 자연석(自然石)을 사용(使用)하였고 옥개(屋蓋) 상하(上下)에는 각각(各各) 삼단(三段)의 층급(層級)이 있다. 초층(初層) 탑신(塔身)은 매우 세장(細長)한데 넓은 우주형(隅柱形)이 표시(表示)되었으나 그 이상(以上)의 탑신(塔身)에는 아무 조각(彫刻)이 없다. 현재(現在) 사층(四層)까지 남아 있는바 각부재(各部材)가 파손(破損)되었고 특(特)히 개석(蓋石)이 심(甚)하다²⁰⁾.

이상(以上) 제이류(第二類)에 속(屬)하는 석탑(石塔)을 개관(概觀)한바 기단(基壇)구성(構成)에 있어 차이(差異)를 보여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전형석탑(典型石塔)에서와 같은 건축기단(建築基壇)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여기서는 단층(單層)으로 되어 전탑(塼塔)이나 모전탑(模塼塔)의 단층(單層) 통식(通式)의 기단형태(基壇形態)와 공통(共通)된다. 의성(義城) 탑리(塔里)와 동(同) 빙계동(氷溪洞)의 오층모전석탑(五層模塼石塔) 또는 월남사지(月南寺址) 모전석탑(模塼石塔), 안동(安東) 하리동(下里洞) 삼층석탑(三層石塔) 등(等)이 이에 속(屬)한다.

둘째가 자연석(自然石)으로 축조(築造)한 얇은 단층(單層) 기단(基壇)을 갖는 것이니 제일류(第一類)의 모전석탑(模塼石塔)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形式)이다. 화순(和順) 다탑봉(多塔峰) 석탑(石塔)이 이에 속(屬)할 것이다.

셋째가 경주(慶州) 오야리(吾也里) 삼층석탑(三層石塔)같이 (圖4) 자연암석(自然岩石)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한 형식(型式)이다. 이러한 형식(形式)은 제일류(第一類)의 영양(英陽) 삼지동(三池洞) 석탑(石塔)에도 (圖5) 그 예(例)를 보았다.

이러한 석탑(石塔)의 위치(位置)가 암석(岩石)이 돌출(突出)하여 전면(前面)이 광활(廣闊)한 지점(地點)을 택(擇)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지(占地)는 비단(非但) 자연암석(自然岩石)이 없는 곳일지라도 지세(地勢)가 돌출(突出)하여 전면(前面)과 좌우(左右)가 개방(開放)된 위치(位置)를 택(擇)하고 있으니 지금은 완전(完全)히 파괴(破壞)되어 형태(形態)를 남기지 않는 안동(安東) 개목사(開目寺) 전탑지(塼塔址) 또는 안동(安東) 북후면(北後面) 양기동(陽基洞) 전탑지등(塼塔址等)을 그 예(例)를 들 수 있어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이 문제(問題)에 관(關)하여는 별도(別途)로 고구(考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國寶圖錄 第五輯

2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第六卷 及 野村孝文 「全羅南道 多塔峰의 遺蹟(朝鮮と建築) 昭和一五・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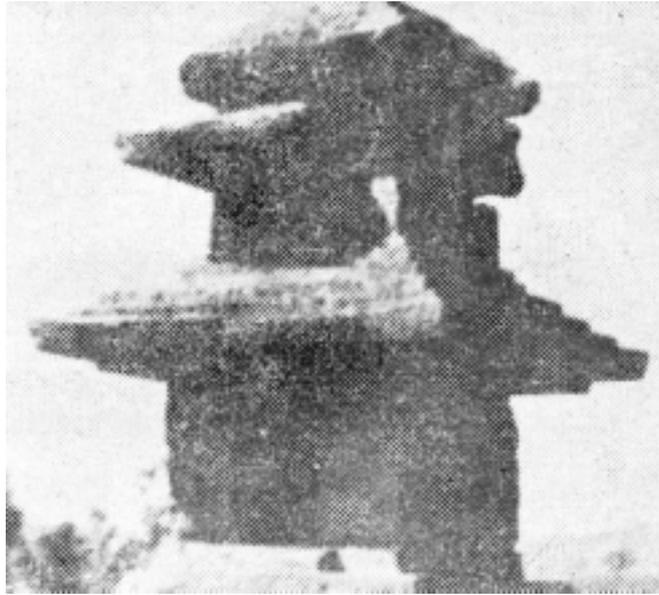


圖 4 慶州 吾也里 石塔

넷째로 경주(慶州) 남산리(南山里) 동(東) 삼층석탑(三層石塔),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계(茸長溪) 삼층석탑(三層石塔) 같이 팔개(八個)의 석괴(石塊)를 써서 사면입방체(四面立方體)의 형태(形態)를 만든 것이 있다. 그 고(高)나 광폭(廣幅)이 모두 2m 내지(乃至) 3m이고 탑신부(塔身部)의 고(高)가 5m여(餘)이어서 탑신부(塔身部)에 비(比)하여 매우 큰 비례(比例)를 보이고 체적(體積)에 있어서도 반석(盤石)같은 육중(肉重)함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단양식(基壇樣式)이 어디서 연유(緣由)하였는가가 문제(問題)된다. 이러한 형식(形式)은 전기(前記)한 삼형식(三型式)과도 연관(聯關)을 찾을 수 없고 제일류(第一類)의 모전석탑(模塹石塔) 내지(乃至)는 전탑(塹塔) 또는 석탑(石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이다. 필자(筆者)는 여기서 이러한 석괴형(石塊形) 기단(基壇)을 자연암석(自然岩石)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한 석탑(石塔)의 위치(位置)가 전술(前述)한 대로 산복(山腹)에서 돌출(突出)된 위치(位置)에 있다는 점(點)을 감안(勘案)할 때 남산리(南山里) 탑(塔)은 평지(平地)에 있으나 남산(南山)의 동록(東麓)에 위치(位置)하였고 서악리(西岳里) 탑(塔)은 선도산(仙挑山) 남록(南麓)에 이르는 산기슭에 있어 봉두(峰頭)에 건립(建立)한다는 의도(意圖)가 엿보이며 용장계(茸長溪) 탑(塔)은 남산중(南山中)에 있어 또한 봉두(峰頭)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新羅) 후반기(後半期)에 혹(或)은 돌출(突出)된 암석(岩石)을 이용(利用)하여 혹(或)은 조망(眺望)이 좋은 봉두(峰頭)에 건탑(建塔)하는 일이 유행(流行)되었고 그러한 의도(意圖)가 산봉(山峰)에 세우거나 평지(平地)에 세우거나 반석(盤石)같은 석괴(石塊)를 이용(利用)함으로써 충족(充足)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의도(意圖)가 평지(平地)에 반석(盤石)과 유사(類似)한 형태(形態)의 기단(基壇)을 마련하면서까지 로현(露現)된다는 사실(事實)은 그 연원(淵源)하는바 이와 같이 봉두(峰頭)를 이용(利用)한 건탑(建塔)과 깊은 관련(關聯)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바 없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석괴형(石塊形)의 기단형식(基壇形式)은 자연암석(自然岩石)을 이용(利用)한 기단형식(基壇形式)과 같은 부류(部類)에 포함(包含)시켜도 가(可)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제이류(第二類)를 기단형식(基壇形式)에 의(依)하여 유별(類別)할 때 결국

(結局) 삼종(三種)이 된다. 여기서 필자(筆者)는 의성(義城) 탑피(塔里) 탑계(塔系)를 「제이류(第二類)A형(型)」, 선산(善山) 죽장사탑계(竹杖寺塔系)를 「제이류(第二類)B형(型)」, 경주(慶州) 오야리(吾也里) 석탑(石塔) 내지(乃至)는 남산리(南山里) 동탑계(東塔系)를 「제이류(第二類)C형(型)」으로 구분(區分)하고자 한다.

이상(以上) 제이류(第二類)에 속(屬)하는 석탑(石塔)을 통관(通觀)한 바 제일류(第一類)의 형식(形式)과는 달리 정형(定型)된 석탑(石塔)의 양식(樣式)을 기반(基盤)으로 그곳에 전탑(塼塔)의 양식(樣式)을 도입(導入)한 것이다. 따라서 제일류(第一類)와 같이 석재(石材)를 전(塼)과 같이 적게 가공(加工)한 것이 아니라 전형석탑(典型石塔)에서와 같이 괴체성(塊體性)이 발휘(發揮)되어 있다. 축조방법(築造方法)에 있어서도 자연(自然) 제일류(第一類)건 제이류(第二類)건 모두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간에 공통점(共通點)을 볼 수 있으니 이 공통점(共通點)이란 전술(前述)한 제일류(第一類)에서 보았던 특징(特徵)을 제이류(第二類)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한 점(點)에 있어서는 같고 또 전탑(塼塔)의 특징(特徵)을 모두 보유(保有)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 양개(兩個)의 유형중(類型中)에서 어느 편(便)이 더 충실(充實)히 전탑(塼塔)을 모방(模倣)하였느냐의 대(對)하여는 다시 말할 필요(必要)없이 제일류(第一類)를 들어야 하겠고 모전탑(模塼塔)의 기원(起源)도 현존(現存)한 예(例)로 보면 분황사탑(芬皇寺塔)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일류(第一類)에서 비롯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의성탑(義城塔)이 전형양식(典型樣式)을 따르지 않았고 목조건물(木造建物)의 부재(部材)를 모(模)한 세부양식(細部樣式)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전형양식(典型樣式)이 정립(定立)되기 이전(以前)의 양식(樣式)으로 보는 것이 정설(定說)로 되어 있으나 임이 그 수법(手法)이 감은사지(感恩寺址)나 고선사지(高仙寺址)의 석탑(石塔)과 상통(相通)하는 바 있어 각부(各部)의 구성(構成) 수법(手法)에서 전형석탑(典型石塔)의 유형(類型)을 볼 수 있고 일부(一部) 전탑(塼塔)의 외형(外形)과 유사(類似)한 점(點)이 있을 뿐 제일류(第一類)의 의도(意圖)와는 거리(距離)가 먼 점(點)을 끝 볼 수 있다.

(六)

이상(以上) 한국(韓國)의 모전석탑(模塼石塔)을 통관(通觀)하고 그 특징(特徵)을 따라 유형(類型)을 구분(區分)하여 보았으나 한국(韓國)에서는 전탑(塼塔)보다도 모전석탑(模塼石塔)이 더 많은 유행(流行)을 보게 되었으니 연마(練磨)된 석조기술(石造技術)은 드디어 이와 같은 이색적(異色的)인 작품(作品)을 안출(案出)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적(韓國的)인 작품(作品)이오 한국(韓國)같이 전(塼)의 사용(使用)이 본격화(本格化)하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特異)한 현상(現狀)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果然) 한국(韓國)을 「석탑(石塔)의 나라」라고 할 만치 그들은 석재(石材)를 구사(驅使)하는 능숙(能熟)한 솜씨를 지녔고 또한 석재(石材)에 대(對)한 무의식적(無意識的)인 일종(一種)의 애착(愛着)을 느꼈던 것이다.

한편 모전석탑(模塼石塔)의 분포문제(分布問題)에 있어서도 논의(論議)되어야 할 점(點)이 있으나 이는 전탑(塼塔)의 분포문제(分布問題)와 아울러 고찰(考察)되어야 하겠기에 따로 기회(機會)를 얻으려 하거니와 고대문화(古代文化) 전수(傳輸)라는 점(點)에서 중요(重要)한 과제(課題)가 될 것이다.

이상(以上)의 서술(敘述)한 유형(類型)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제일류(第一類) A형(型)-분황사(芬皇寺) 석탑계(石塔系)
 B형(型)-상주(尙州) 상병리(上丙里) 석탑계(石塔系)
 A형(型)-의성(義城) 탑리(塔里) 석탑계(石塔系)
제이류(第二類) B형(型)-선산(善山) 죽장사(竹杖寺) 석탑계(石塔系)
 C형(型)- 경주(慶州) 남산리(南山里) 석탑계(石塔系)

이와 같은 제유형(諸類型)의 축조연대(築造年代)를 보면 제일류(第一類) A형(型)에 속(屬)하는 분황사(芬皇寺) 석탑(石塔)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있어 가장 출현(出現)이 오래고 제이류(第二類) A형(型)이 통일(統一)을 전후(前後)한 시기(時期)의 신라(新羅)의 소작(所作)이고 보면 모전탑(模塼塔)의 경영(經營)이 오랜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제일류(第一類)와 같이 석재(石材)를 전(塼)과 같이 가공(加工)하여 사용(使用)하는 진(眞)에 가까운 형태(形態)에서 출발(出發)하였음은 모전(模塼)의 태도(態度)에 있어 진실(眞實)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일류(第一類) B형(型)과 같이 용재(用材) 가공(加工)에 있어 조야(粗野)한 면(面)이 가(加)해짐은 이것이 일반석탑(一般石塔)의 저소(低小) 생략(省略)과 같은 과정(過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전탑(模塼塔)이라는 본래(本來)의 조성태도(造成態度)에서 이탈(離脫)되는 경향(傾向)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제이류(第二類)에 이르러서는 양식적(樣式的)으로 제일류(第一類)의 아류(亞類)에 속(屬)하는 것으로 전탑(塼塔)의 특징(特徵)을 일부(一部)에 이용(利用)하였을 뿐 더욱 거리(距離)가 먼 조성태도(造成態度)라고 할 것이다.



圖5 英陽 三池洞 石塔

여기서 또 한가지 남는 문제(問題)는 제일류(第一類)에서 자연암석(自然岩石)으로 기단(基壇)에 체치(替置)한다던지 여기서 영향(影響)을 받았다고 추측(推測)되는 제이류(第二類)의 방형(方形) 석괴(石塊)로서 입방형(立方形)의 석괴형(石塊形) 기단(基壇)을 구성(構成)하는 이유(理由)가 무엇인가이다. 자연암석(自然岩石)을 기단(基壇)으로 이용(利用)하는 예(例)는 비단 모전탑(模塼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석탑(一般石塔)에서도 볼 수 있고 자연암석(自然岩石)을 이용(利用)하지 않아도 산복(山腹)에서 돌출(突

出)된 봉두(峰頭)에 건탑(建塔)하는 예(例)를 많이 볼 수 있음은 전술(前述)한 바 있지만 이 문제(問題)는 모전탑(模塲塔)만 가지고 논의(論議)할 문제(問題)가 아니고 일반석탑(一般石塔) 내지(乃至)는 전탑(塲塔)까지도 포함(包含)하여 고찰(考察)되어야 할 문제(問題)임을 따로 기회(機會)를 얻고져 한다.